



FOCUS NEWS

네덜란드 전 총리 Jan Peter Balkenende에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9월 11일에 본관 4층에서 네덜란드 제49대 총리 (2002~2010년)를 역임하고, 현재 에라스무스(Erasmus) 대학교 경제대학 및 법학대학 교수인 Jan Peter Balkenende(얀 피터 발케넨데)에게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Jan Peter Balkenende 교수는 20여 년 전부터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실천해왔다. 그는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 사회 전반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그 공로로 독일,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브라질, 가나 등 다수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바 있다.

Jan Peter Balkenende 교수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므로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본교는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또한, 본교가 추구하는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선의 가치 확립과 ESG와 관련 유럽대학들과의 협력 증진에 Jan Peter Balkenende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는 심종혁 총장이 학위수여 식사를 하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우재명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학위수여식 이후 Jan Peter Balkenende 교수는 본교 LINC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서울 ESG 산학협력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Capitalism Reconnected for sustainable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ESG 생태계와 관련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본교가 글로벌 차원에서 ESG 가치 실현과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하반기 국내정책세미나 성료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원장 허정)은 11월 20일 계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현황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하반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경제학과 이진권 교수,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윤여창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자로 참여했고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임희현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권 교수는 ‘파리협정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파리협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김재운 과장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전환 리스크 및 물리적 리스크의 파급 경로를 설명했다. 윤여창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발표하며,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서강

대학교 김홍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참석자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책 및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허정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 기라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후 금융,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대학 이영훈 교수· 회룡건설 유동열 대표 2024 서강경제대상 수상



〈 이영훈 교수, 유동열 회장 〉

11월 25일, 본교 경제대학원(원장 박정수)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신명식)는 ‘2024년 서강경제대상’ 수상자로 교수 부문에 이영훈 교수, 동문 부문에 유동열 회룡건설 대표를 선정했다.

이영훈 교수는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본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한 그는 연구 탁월성을 인정받아 ‘이승윤 연구기금 교수’로 선정되었다.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편집위원장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실증경제학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계량경제학과 스포츠경제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술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유동열 회장은 1980년대 호주 시드니에서 사업 기반을 마련한 뒤, 1996년 국내에 진출하여 회룡건설 창업에 참여했다. 그는 전문 건설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안착에 앞장서 왔으며 초고층 주거 빌딩의 전문 건설파트너로서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전문 건설업계의 국내 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 멘토링 사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서강경제대상’은 서강대 경제대학원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수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11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강대 경제대학원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되었다.

NAFSIK(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cholars In Korea) Inaugural Conference 개최



본교 경제학부는 10월 12일, NAFSIK의 제1회 학제 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NAFSIK는 한국 내 다양한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한국인 학자들을 위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학문 조직이다. 한국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과학, 공학, 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 연구자,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인 학자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NAFSIK는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학자들과 한국 정부 및 국가기관 간의 전문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학 또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글로벌화 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을 소통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60명의 참가자가 모여 27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환영사에서, 2025년 NAFSIK 의장직을 맡게 될 Doruk Iris 교수는 수년간의 비대면 행사를 마치고 NAFSIK 회원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을 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학자들이 한국과 모

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학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연구 자금 지원과 같은 재정적, 제도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급여 동결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은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NAFSIK가 한국 학계에 기여하는 국제학자 네트워크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경제대학 김인경 교수,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김인경 교수〉

김인경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데이터사업진흥원이 전담하여 시행하는 데이터 일반 가공 부문의 2024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의 총 예산은 463.5억이고, 2023년의 경우 총 894억 예산이다. 총 7376건이 접수되어 최종 2010건이 선정되었다. 김인경 교수의 사업 주제는 “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이 국내 전기차 보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이고, 지도학생인 홍영진 학생과 함께 자동차 모델 단위 등록 데이터 및 소비자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우처 사업 지원 예산으로 지원받아(3200만원) 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대학 정국모 교수, NRF 인터네셔널 모빌리티 과제 선정



〈정국모 교수〉

정국모 교수의 "중앙은행의 2차 자산시장 개입이 자산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과제가 2024년도 NRF 인터네셔널 모빌리티 과제에 선정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 간의 공동세미나,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R&D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포함한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국모 교수는 2025년까지 총 2000만원의 연구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경제대학 곽준희, 김윤정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 곽준희 교수, 김윤정 교수 〉

곽준희 교수와 김윤정 교수의 “재정여력을 고려한 장기 성장 모형 구축” 연구과제가 조세재정연구원 과제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내생적 부도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준칙 도입, 의무지출 효율화 등 구체적인 정책처방을 제안한다.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을 고도화하고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곽준희 교수와 김윤정 교수는 총 3000만원의 연구비를 조세재정연구원로부터 지원받는다.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Dean's List Award, 김영훈-김영민 장학금,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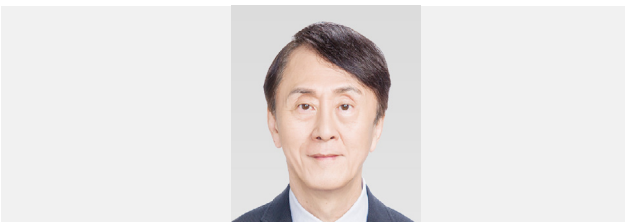


11월 6일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에서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GN관) 서강경제 리셉션홀 (511호)에서 진행됐

다. Dean's List Award, 김영훈-김영민 장학금,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수여식에는 박정수 경제대학 학장, 김윤정 경제대학 과장, 정국모 경제학과 주임교수가 참석했다. 시상식 행사에서는 등록생의 5% 내외에서 선정되는 우수한 성적의 Dean's List 학생들과, 1% 내외의 성적 최우수 학생들에게 각각 장학증서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김영훈 장학금은 대학원생이 연구에 더욱 힘써 정진하도록, 박사과정생에게 수여되었고, 김영민 장학금은 학부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학부생들에게 수여되었다. 부상으로는 학교 및 학과에서 준비한 손난로와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진로 및 학교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경환 명예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 제청



〈 김경환 교수 〉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신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본교 경제대학 김경환 명예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김경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한 이번 사장 임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김경환 명예교수는 도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UNCHS(UN Habitat) 도시재정 자문관,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등 부동산 및 도시경제 분야의 다양한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또한 국토연구원 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하며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풍부한 공식 경험을 쌓았다.

금융위원회는 “김경환 내정자가 주택금융 공급과 주택연금 활성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하며 “주택시장 및 제도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 선정



〈 이승일 박사과정생, 박정수 교수 〉

본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승일 학생(지도교수 박정수)이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4년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은 박사과정생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학생이 주도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박사과정생들이 향후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박사과정생은 총 2년 간 4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이승일 학생의 연구는 "디지털 신기술 도입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다. 이승일 학생은 본 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며, 특히 본인 연구과제의 시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박정수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서 본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학문적 기여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ESG 산학협력포럼’ 성황리에 개최



본교 LINC사업단(단장 송태경)은 한국연구재단, 서울특별시 후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진흥원 등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서울 ESG 산학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ESG 협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본교, 코엑스, DDP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120여 명의 ESG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9월 11일 본교에서 열린 메인 포럼은 ‘ESG 생태계와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네덜란드 전 총리이자 본교

명예박사인 Jan Peter Balkenende의 기조강연과 Royal Dutch Shell, 한국전력공사 등 기업들의 ESG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서울지역 대학들이 ESG 관련 기술을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공동 기술 개발을 논의했다.

9월 1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주요 대학 및 기관이 협력하여 ESG 산학협력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 2024’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되었다.

송태경 단장은 “서울 ESG 산학협력포럼은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ESG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학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행정고시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경제학 전공자 4명 합격

2024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본교 경제학 전공자 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부문별로는 김혜지(경제 15) 학생이 일반 행정직에, 김승환(경제 13), 신소연(경제, 16) 학생이 재경직에 최종 합격하였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서는 본교 경제학 전공자 강승구(경제, 14) 학생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2024년도 공인회계사, 경제학 전공자 8명 합격

2024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본교 경제학 전공자 8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희광(경제 15), 박소정(경제 16), 송민규(경제 17), 권은지(경제 17), 박유진(경제 18), 신정민(경제 19), 양지연(경제 19), 정윤희(경제 19)



퇴임교원 인터뷰 : 전성훈 교수



(전성훈 교수)

전성훈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학문발전과 후진양성, 보직수행 등으로 헌신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직 생활을 마치시는 교수님의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1993년 3월에 부임했으니, 내년 2025년 2월 정년까지 32년 동안 교수로 재임하게 되네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대과 없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 역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소회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삶이 항상 뜻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지요.

교수님께서 연구해 오신 분야와 연구 성과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재직하시면서 수행하셨던 연구나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것 혹은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박사논문은 기업 내의 다양한 인센티브 문제를 다루는 기업이론에 대해서 썼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산업조직 경제학과 그 정책적 응용분야인 경쟁정책과 산업규제로 폭을 넓혔습니다. 연구는 순수 학문 보다는 정책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공정거래 정책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매년 서너 건의 커다란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기업 측이나 정부 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중에 의미가 있는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출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제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에서 이정표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선별해서 관련 경제분석 내용을 소개하는 “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박영사)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간은, 해외의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전반에 대해서 소개하는 “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라는 영문 단행본을 집필하였고, 2025년 초 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제가 연구한 것을 집대성해서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책을 단독으로 출판하는 것이 교수로서 이룬 것 중에서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대한 기대

없이, 온전히 자기성취의 욕구에 따른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교수님께서서는 학장, 대학원장, 부총장 등 수많은 업무와 보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경제대학 학장 때 뉴스레터를 만들었는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네요. 학교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되는 것은 행운입니다. 지난 4년간 심종혁 총장님의 리더십 하에 다른 보직 교수들과 힘을 합쳐서 침체에 빠졌던 서강대학을 다시 일으키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원장을 맡을 때 충원율이 60%대였는데 이제는 100%를 달성하였고, 대규모 BK사업단이 3개밖에 안되어서 대학원혁신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5개가 되어서 연간 10여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학과가 이번에 AI 관련 혁신연구사업단으로 선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제대학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입장에서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물론 이런 성과가 제 임기 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년 전에 성과를 볼 수 있어서 크게 기쁩니다. 교학부총장은 학내 거의 모든 부서와 모든 현안을 다루는 보직입니다. 40여개 위원회를 주관합니다. 교학부총장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서강대만의 특색을 지닌 자유전공제 도입의 구조조정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인문학기반, Science 기반, AI 기반 자유전공은 교육부도 혁신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학년 이후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반이 되는 학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관련 기반의 소양을 쌓아서 어느 전공을 택하던 융합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학과를 위해 수고해 주셨는데, 교수로서 계신 와중에 여러가지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구나 보직업무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었다면 언제인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경제학과가 대규모 학과여서 개별적인 면담 외에 학생, 교수가 함께 어울리는 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 가을 “경제인의 날”을 마련해서 단합을 도모해왔습니다. 오래 전에는 체육관에서 팀을 나누어 배구도 하고, 장기 자랑도 했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2000년대 후반 어느 해에는 하이트 사가 냉동저장차를 세워놓고 아리따운 판촉직원들이 생맥주를 무료로 무

제한 서빙 해주었어요. 그게 제가 2005년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서, 합병이 무사히 통과된 후에 제가 요청하면 우리 과 행사에서 맥주, 소주를 무료로 공급해주었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최근에는 경제관 4층 김상수 홀에서 경제인의 날 행사를 하지요. 5, 6년 전에 저도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한두 곡 했는데, 늦게 기타를 배워서 잘 치지는 못해요. 우리 학생들을 제 연주 실력 향상을 위한 스파링 파트너처럼 이용한 듯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는 제 연주를 듣고 한 학생이 우는 거예요. 물론 기타 연주를 너무 잘 해서는 아닙니다. “섬집 아기”라는 곡이었는데, 당시 경제학과에 매우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고, 섬집 아기의 멜로디와 가사가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로서 가장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본교 부임 당시의 학교/학과/학생들 분위기는 어떠했는지요? 그리고 현재와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교 혹은 학과의 전통 중 계승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강대 학생들 모두 특히 우리 경제대학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반듯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강대, 특히 경제대학의 전통은 Gentlemanship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 학생, 졸업생 동문, 교수님 들 중에 사악한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속된 말로 뒤통수 치지 않고, reliable 합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신입 임용을 둘러싸고 사후에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는 서로 이견이 있어도 결정된 것은 모두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이는 교수님들에만 해당하지 않고, 서강경제 전반의 virtue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통이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퇴임 후에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됩니다. 향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퇴임 이후 곧바로 로펌에서 경제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수 시절에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면서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업을 하였는데, 이제 로펌 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공정거래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규제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들에게 자문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 분야의 후배 교수들과 산업계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년 후 덤으로 하는 일이니, 너무 무겁게 짐을 지지

는 않으려 합니다. 기타도 더 열심히 배우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책도 읽으면서 여유를 즐겨야겠지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학생들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잘 하는 일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좋아하는 일을 잘 한다면 최상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잘 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대개의 경우 잘 하는 일을 하면, 인정도 받고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니라면, 바꾸어야 하겠지요. 자기개발 서적 중에 “Grit” 과 “Quit” 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제목으로 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Grit는 끈기 혹은 소위 ‘증꺾마’인데, 우선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으면, by definition, 끝내는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불행하면 Quit,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Quit 이 꼭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공 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공직 합격수기 I



〈박유진, 경제18〉

안녕하세요. 2024년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경제학과 18학번 박유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제 이야기를 경제학부 뉴스레터에 실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계획을

세웠기에, 제 수기를 읽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험에 진입하였을 때와 달리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IT 비중 확대, 출제 범위 사전예고제, 시험과목 변경 등 2025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의 상당 부분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편안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경제학과 학우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시험 응시 자격 및 시험에 대한 소개, 시험 준비 과정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간단하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점인정신청 및 영어성적인정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6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의 정보기술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영어시험성적이 일정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의 경우 요구되는 학점인정과목 중에 상당 수를 학교 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학점만을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를 통하여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1차 시험(객관식 필기시험)의 경우 경영학, 경제원론, 기업법, 세법개론, 회계학으로 구성되며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시험은 타임어택의 성격이 강하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인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한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과 실전 감각을 충분히 기르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22년 첫1차 시험

에 불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재시를 결심하면서 매주 과목별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푸는 스테디에 참여했고, 과목별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문제에서 틀린 포인트를 단원별로 정리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해인 23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본인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서현전(토마스모어관CPA반) 모의고사나 학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며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시험(주관식 필기시험)의 경우 세법,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회계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절대평가로 합격한 사람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하여는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시험에는 부분 합격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잘 활용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과목별 수험 전략을 세운다면 최종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준비는 우선 1차 과목 기본강의를 들으며 시작됩니다. 기본서를 회독하며 개념을 확실히 다진 후에는 대체로 9-10월부터 과목별 객관식 문제 풀이와 기출 문제 풀이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과목 연습서를 미리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1차 시험은 매년 2월에 시행되고, 2차 시험은 6월에 치러지므로 1차 시험에 합격하여 동차생이 되더라도 남은 2차 시험 준비기간이 4개월로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2차 시험의 경우 부분 합격제도가 존재하므로 전 과목을 한 번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학, 세법, 재무관리의 경우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비중 있게 출제되기 때문에 1차 시험 준비 기간에도 해당 과목들의 2차 시험 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또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2차 연습서 공부를 최대한 병행했으며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3과목 유예를 거쳐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을 마치며 느낀 점은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자신의 공부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저의 경우는 처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뒤, 본가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견디고 학습효율이 높아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잘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재시를 결심하며 교내 토마스모어관 공인회계사반에 입실하였고, 그 안에서 스터디를 통하여 운이 좋게도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답안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보다 문제 풀이 서술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고 자료를 공유하며 혼자 공부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특성상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 함께 공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부성향을 고민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과목별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 수많은 학습량과 반복되는 문제 풀이 속에서 지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의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시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며 스스로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로 무기력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저는 짧은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환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하게 쌓일 경우 공부를 비롯한 수험생활 전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미리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험생활은 훨씬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수험생활에 몰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믿음과 응원이었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제 수기를 읽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수험생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기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스스로를 믿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임하다 보면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어느새 합격이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하는 모든 학우분들에게 제가 쓴 수기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 합격수기 II



〈신정민, 경제 19〉

안녕하세요. 2024년 5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19학번 신정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경제학부 뉴스레터에 수기를 실을 수 있어 영광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응원해준 동기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회계사 시험에 준비했을 때 당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합격 수기를 참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5월 군입대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요건을 충족시키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군대에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24년 6월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의 합격 수기가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 처음 군대에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2022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시험에 진 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기본강의만을 수강한 상태로 2021년 11월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그래도 2022년도 2월에 1차 시험을 한번 치러보자는 생각으로 전 과목 빈출 되는 객관식 문제를 무작정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식 교재에 있는 필수 문제들만 집어서 문제 자체와 풀이를 무식하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역 직후, 5시간씩 상법 기본강의를 듣는 와중에, 나머지 과목 객관식 문제를 소화하느라 하루에 14시간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2월 회계사 시험 전까지 모든 진도를 마칠 수 있었지만, 실력이 아직 쌓이지 않아 330점이라는 점수로 1차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생각에 허무했지만, 군대 전역 후 3개월 동안 무식하게 공부했던 기간이 나중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고득점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을 탈락한 직후, 이번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를 고민한 결과, 문제를 단순히 암기만 했지,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1주일 정도 휴식 후 바로 학기를 병행하며 10월까지 연습서(회계, 세법, 재무관리, 원가회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연습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작정 커버리지를 늘리지 말고 가장 시험에 많이 빈출되는 파트 위주로 논리를 이해하고 암기하며 깊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습서 회독 후 객관식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10월부터 경제학, 경영학, 상법을 병행하며 점차 공부량을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1차 시험에 400점이 넘는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2023년도 동차 시험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1차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11월부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씩 공부하였지만, 그 정도의 공부량을 동차 시험에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습서를 무작정 회독해도 실력이 많이 쌓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2차 시험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운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매우 지쳐있었고 긴장감으로 시험 전날까지 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유예(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유예가 1차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동안의 공부량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 이후, 유예 생활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공부 방식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고 두 가지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연습서 위주로 회독을 많이 늘려가며 맞춰야 하는 문제를 반드시 맞추겠다' 였습니다. 동차 때는 실전 gs 문제를 풀어가며 실전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연습서에서 반복하면서 제것으로 만들었던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유예 때는 반드시 연습서를 최소 5회독 이상씩 반복하여 어떤 순간에도 풀 수 있도록 숙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패턴을 반드시 유지하자' 였습니다. 동차 때에는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면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패턴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지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예 때는 공부가 힘들 때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잠깐 쉬는 일이 있어도 공부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과목 모두 고득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유예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즘 2차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기존에 나오지 않은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커버리지를 늘려야겠다는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이 어려울 때에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맞춰야 할 문제를 반드시 맞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서 다회독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습서를 회독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서를 자주 회독하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것이 시험 볼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매일 아침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러닝을 하면서 수험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는 것이 수험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연습서, 실전 gs를 푸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고 '내가 하는 공부방식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공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고는 하되 전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식에 의문이 든다면 온라인으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합격자의 수기를 참고하되, 스스로의 공부과정에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공부를 하다보면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공부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기를 보시는 경제학부 학우분들 모두 나중에 필드에서 뱃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두 행운을 빕니다.

교수동정

◎ 보직교수 인사



〈김진원 경제대학원
부원장, 부동산경제 주임교수〉

김진원 교수가 2024년 9월을 시작으로 경제대학원 부원장에 부임하였다. 아울러 경제대학원 부동산경제 주임교수를 맡았다. 김진원 교수는 본교 경제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연구년 소식

전현배 교수는 2024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개월간 연구 학기를 마치고 복귀하였다. 안태현 교수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이영훈 교수, 김홍균 교수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연구 학기를 갖게 된다.

◎ 김윤정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사무국장 선임 /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의원 위촉



〈김윤정 교수〉

2024년 9월을 시작으로 김윤정 교수가 한국국제금융학회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국제금융학회는 국제금융 이슈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계, 정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2009년에 설립된 학회이다. 정책 학술대회와 국제금융연구 발간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탐구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김윤정 교수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의원으로 위촉되었다.

◎ 주하연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



〈주하연 교수〉

2024년 9월에 주하연 교수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사회, 경제, 미래 세대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하연 교수는 이 중 경제 분과 위원으로 경제 양극화 완화에 관련된 주요 현안들(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구조개혁을 통한 격차 완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에 관한 정책 및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 Doruk Iris 교수, NAFSIK 의장 선출



〈Doruk Iris 교수〉

Doruk Iris 교수가 NAFSIK(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cholars In Korea) 의장에 선출되었다. 2025년부터 3년간의 임기를 맡게 된다. NAFSIK는 한국 내 다양한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한국인 학자들을 위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학문 조직이다. 한 국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과학, 공학, 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 연구자,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인 학자들에 계도 개방되어 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대학 정기세미나**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 연구 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김현철(3월 15일)

HKUST(홍콩과학기술대학교)

The Selection Effects of Part-Time Work
Experimental Evidence from a Large-Scale Recruitment Drive

박지원(4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이승훈(4월 19일)

연세대학교

Cities as Inverted Watersheds

홍승현(4월 30일)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ash is King? Understanding Financing Risk in Housing Markets

김덕규(5월 2일)

성균관대학교

Unveiling the Failure of Positive Selection

황선주(5월 10일)

한국개발연구원

Rising Market Power and Corporate Tax Shocks

윤장수(5월 17일)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Inference in Game Theoretic Models of Incomplete Information with Random Coefficients

신은철(6월 4일)

KAIST

Network Uncertainty and Robust Intervention

서보영(6월 7일)

Indiana University

The Empirical Analysis of Predatory Pricing Aspects of Loss Leading

이우용(6월 11일)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dynamic random coefficient models

김규일(6월 28일)

Michigan State University

Identification of Dynamic Panel Logit Models with Fixed Effects

이성원(7월 17일)

서강대학교

Recent developments in difference-in-differences

Ali Hortacsu(8월 5일)

University of Chicago

SEARCHING FOR APPROVAL

이재철(8월 12일)

University of Chicago

Bounds, Benefits, and Bad Air: Welfare Impacts of Pollution Alerts

이동규(8월 27일)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Income Inequality an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 2024 SRS (Summer Research at Sogang International Conference)

2024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7월 8일에 특강이 개최되었다.

우수경

세종대학교

Rising Current Account Dispersion: Financial or Trade integration

유동훈

Academia Sinica

Overreaction in Expectations: Experimental Evidence

Ying Fe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utomation and Gender: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Segregation and the Gender Skill Gap

양충열

Federal Reserve Board

Land Development and Frictions to Housing Supply over the Business Cycle

홍승기

Purdue University

Monetary-Fiscal Interactions in the United States

이연준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New Results on the Disparities between Same-sex and Different-Sex Couples in the Home Mortgage Market

박준엽

Duke University

Improving Access to Opportunity: Housing Vouchers and Residential Equilibrium

명신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Financial Crisis and Female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South Korea

이영준

KIEP

Semi-nonparametric models of multidimensional matching: an optimal transport approach

윤영노

Wayne State University

Competition for Market Share, Oversupply, and Price Rigidity under Sequential Supply Decisions

황영재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Implications of Lump sum Deposit Rental Agreements on Savings, Housing Demand, and Welfare

경제학과 단신

2024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 나. 선정 기준
- 2학기 이상
 - CGPA 3.3 이상
 - 경제학원론I, II, 경제통계학, 경제수리기초를 모두 이수하고 세 과목에서 B+ 이상의 학점을 취득
- 다. 선발 일정 : 24년 12월 선발 및 25년 1월 발표 예정

2024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정자

- 가. 재무경제학 : 김범찬(20), 윤신우(22)

경제학부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가.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CGPA) 3.7 이상 학생
- 나. 선발인원 : 39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 다. 지급방식 : 증서와 상품(상품권)을 경제대학 행정실에서 배부

경제학부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학기 3학기~7학기생 중 각 학기별 성적 상위 2명씩(금학기 휴학생 제외)
- 나. 선발 인원 : 10 명
- 다. 장학금 : 학업 장려금 1,000만 원 (인당 100만 원)
- 라. 장학금 기부자 : 경제대학 동문회

2024학년도 2학기 경제인의 날 개최

- 가. 일자 : 2024.11.8 (금) 오후 6시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4층 경제학 카페도서관
- 다. 주관 : 경제학과 학생회
- 라. 행사 내용
- 학생과 교수 간의 만찬 및 친목 도모, 학생과 교수의 합동

축하 공연.

- 주요경품 : 맥북프로 13인치,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애플워치 SE2, 필립스커피머신, 미닉스 미니건조기, 에어팟 프로 2세대, 백화점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티콘,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등
- 마. 후원 : 권오승(경제 82), 김기현(경제 85), 김영근(이도 도자기&청담 이도레스토랑 대표, 경제 83), 김호범(르퐁쵸자산운용 대표, 경제 82), 김환균(아셈자산운용 전 대표, 경제 80, 김홍균 교수 섭외), 성대영(위더스제약 대표), 손영득(KS한국고용정보 대표, 김홍균 교수 섭외), 이인희(경제 82), 이철순(에프엔가이드 대표, 경제 82), 이택수(원베스트벤처투자 대표, 경제 83, 김홍균 교수 섭외), 전승현(텔몬트음료 대표, 김홍균 교수 섭외), 정하경(경제 82)

[경제대학원 G-EnH 최고위과정]

G-EnH (글로벌윤리준법건강 최고위과정) 제 20기 수료식

- 가. 일시 : 2024.08.23
- 나.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
- 다. 수료 인원 : 7명

G-EnH (글로벌윤리준법건강 최고위과정) 제 22기 수료식

- 가. 일시 : 2024.09.27
- 나.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514호
- 다. 수료 인원 : 40명



경제대학원 소식

경제대학원, 2024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 김홍균 교수



〈김홍균 교수〉

9월 27일, 서강대학교 계페르트남덕우 경제관(GN관) 301호(이승윤 강의실)에서 '2024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제대학원 총동문회 및 총원우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행사에는 동문, 원우,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ESG경제의 국내 최고 석학이신 김홍균

교수는 'ESG101: 이론과 실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제63회 학위수여식 개최

가. 일시 : 2024.08.20

나. 장소 : 계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

다. 학위수여자 : 총 56명

전공	인원
공공의회노동경제전공	4
국제경제전공	7
금융경제전공	20
노동경제전공	1
부동산경제전공	9
인공지능경제	3
ESG경제	12
합계	56

학술호프데이 특강

가. 일시 : 2024년 10월 4일

나. 장소 : 계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

다. 경제현안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 은행과 은행위기 (2023년의 교훈)

- 발표 : 최동범

라. 참석인원 : 총 80명(재학생, 교수, 직원 등)



2024학년도 후기(68기) 신입생 등록 현황

가. 지원 103명

나. 합격 44명

다. 최종 등록 : 44명(신입생 44명)

68기 신입생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가. 일시 :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4시

나. 장소 : 마포 서울 가든 호텔

다. 참석인원 : 총 100여명(신입생 44명, 재학생, 교수, 직원 등)

2025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 일반경제학 - 금융경제, 국제경제, 공공의회노동경제	00명
	*4학기 : 인공지능경제전공	
	*4학기 :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 ESG경제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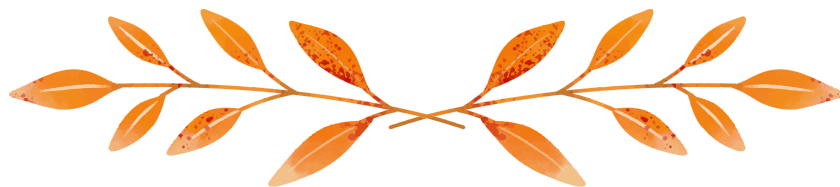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비고
원서접수	2024.10.23(수) ~ 2024.11.6(수)	2024.11.25(월) ~ 2024.12.5(목)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접수사이트 : 진학사 (www.jinhak.com)
서류제출	2024.11.6(수) 17:00 까지	2024.12.5(목) 17:00 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접수
전형일시	2024.11.13(수) 18:30 부터	2024.12.11(수) 18:30 부터	면접 전형일 1일전 ZOOM 접속 주소통지 수험생 개별 문자 (SMS 서비스)로 통지 예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 가능)
합격자발표	2024.11.20(수) 15:00	2024.12.19(목) 15:00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등록금 납부	2025.1월 초 예정		상세 납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취소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5.2.14.(금) 예정		진행 방법 혹은 행사 장소 등은 추후 공지 예정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경제대학원 OLP 26기 수료식 개최

Opinion Leaders Program



이날 참석한 수료생들에게는 한 학기의 결실을 담은 수료패가 수여되었으며, 특히 성실한 참여가 돋보이는 원우와 운영과정에 공로가 큰 원우에 대한 특별 시상도 뒤따랐다. 또한, OLP 26기 자치회(홍진기 회장)에서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26기 홍진기 회장은 박정수 경제대학원장에게 발전기금 기증서를 전달하였고, 서강학과 후학 양성에 뜻을 함께 하였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pinion Leaders Program 26기 수료식

■ 일시: 2024년 6월 27일(목) ■ 장소: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 (GN관) 101호



지난 6월 27일(목) Opinion Leaders Program (OLP) 26기 수료식이 본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층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박정수(경제대학원장), 경제대학원 교수들, 손영득 OLC 회장, 그리고 민원표 OLC 사무총장이 26기 수료식에 참석하였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LP는 서강대 경제대학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협의 때문에 언론인들과 기업인들의 경제 재교육을 위하여 2002년 9월에 개설되었으며, 26기에서 28명이 수료하여 현재까지 총 1,11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날 수료한 26기 원우들은 매주 목요일 정규 강의 및 합숙 세미나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던 한 학기를 되돌아보며, 수료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갈 것을 약속하였다. 향후 OLC 정회원이 되어 주기적으로 OLP Journal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OLP 과정 소개

OLP 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동문동정

- 김현석(경제 90) 동문,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전보
김현석(경제 90) 동문이 7월 3일자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김현석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90학번으로 졸업했다. 행정고시 합격자 출신(49회)으로,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에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 최현정(경제 00) 동문,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전보
최현정(경제 00) 동문이 7월 3일자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최현정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00학번으로 졸업했다. 행정고시 합격자 출신(48회)으로,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에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 김상건(경제대학원) 동문, 아비바코리아 대표 선임
김상건 경제대학원 동문이 2024년 6월 3일 아비바코리아 신입 대표로 선임되었다.

김상건 동문은 모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싱가포르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 MBA CEP(Client Executive Program)을 수료했다. IBM에서 10여 년간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룹,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시티 사업부를 이끌었다. 이후 PTC코리아에서 지사장을 역임하며 2016년부터 주요 제조 고객사들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왔다. 아비바 코리아는 24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제조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아비바가 가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어떻게 산업 성과를 변화시키고 혁신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실무 경험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김상건 동문을 신입 대표로 선임했다.

한편 아비바코리아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필요한 3D 설계, 운영 데이터 관리와 클라우드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 현장 내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수익성 및 규정 준수를 극대화하도록 돕고 있다. 김상건 대표는 "연결된 정보 생태계에서 산업 환경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확보하는 것은 은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디지털 스펙트럼을 구축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아비바코리아의 새로운 수장으로 국내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 김종민(경제 96) 동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로 선임
김종민 동문이 2024년 7월 22일, 메리츠증권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2027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3년간 메리츠증권 CEO를 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김 신입 대표는 기업금융부문과 관리부문을 전담하게 된다.

김종민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96학번으로 입학하였다. 졸업 후 모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삼성증권 FICC상품팀 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전무)을 맡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기업 대출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고투자책임자(CIO)을 맡아 압도적인 자산운용 수익률로 메리츠화재의 자산 규모를 급성장시킨 역량을 인정받아 2023년 11월부터 메리츠금융지주 그룹운용부문 부사장을 겸임해 왔다. 김 대표는 향후 메리츠증권 투자운용뿐 아니라 미래 성장 사업 발굴에도 매진하는 등 효율적 자본 배치를 통한 증권의 추가 성장 기회 마련에 전념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리츠화재 출신인 그가 증권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그룹 내 계열사간 실질적 통합에 따른 효율적 자본 배분,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신훈(경제대학원) 동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으로 선임
신훈 동문이 지난 7월 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입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 단체가 협심하여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법적 구호단체이다. 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의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훈 동문은 모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한일투자신탁, 국무총리실 공보실, 국정홍보처 등을 거쳐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 김형준(경제 85) 동문,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입 사업전략본부장 취임

김형준 동문이 지난 7월 4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입 사업전략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사업전략부, 사업관리부, 해양산업 정보센터를 담당하며, 앞으로 최소 2년간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형준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85학번으로 입학 후 졸업했다. 이후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해양기업금융실장, 기업구조혁신실장, 서비스산업금융부장, 해양금융단장(해양금융종합센터장 겸임), 프로젝트금융본부장(부행장),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을 역임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대외경제협력 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 <해운산업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조선산업 발전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 이상욱(경제대학원) 동문, 제6대 인간개발연구원 신입 원장으로 취임

이상욱 동문이 9월 5일 인간개발연구원 제 6대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인간개발연구원(HDI)는 1975년 한국 최초의 조찬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 최고경영자(CEO)들이 공부하는 모임으로 49년을 이어온 최장수 단체이다. 이상욱 신입 인간개발연구원 원장은 “인간개발과 기업 성장의 해답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며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강조했다. “자기개발이 되어야 인간개발이 된다.”는 모토 아래, 사람을 개발하는 일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상욱 동문은 모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과 농민신문 사장을 거쳐 농협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는 등 40여년간 농협에서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경영 전문가이다. 그간 여섯 권의 서적을 출간하여 유통전략과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앞으로 인간개발연구원 원장으로서, 기업 리더들과 함께 인간개발과 조직 성장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조직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김경환(경제 76) 명예교수, 주택금융공사 신입 사장으로 취임

김경환 동문이 9월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경환 동문은 취임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환경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공사의 핵심 역량을 키워, 수요자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

는 금융상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는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환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76학번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행하였으나,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시라큐스 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귀국하여 1988년부터 모교 경제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그는 도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국토연구원 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제청하여 신입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 주우정(경제 83) 동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승진

11월 15일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 기아 재경본부장(부사장)인 주우정 동문이 사장으로 승진·내정되었다. 주 신입 사장은 그룹 내 대표적 재무 전문가로, 기아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달성에 기여한 핵심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우정 신입 대표가 단기적으로는 원가율 재고 등 체질 개선을, 장기적으로는 기업공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우정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83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계열사에서 재무관리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기아에선 슬로바키아법인 경영관리실장, 유럽법인 재무실장, 본사 재무관리실장을 맡았고, 현대제철로 이동해서 재무관리실장, 원가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기아 재경본부장으로 임명돼 CFO로 활약한 바 있다. 주 대표이사는 기아 CFO 재직 시절, 기아가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호실적을 유지한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원가율 관리에 신경 쓰는 한편 유동성을 확보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기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으며, CFO 부임 전 AA등급으로 떨어졌던 신용등급도 AAA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실적을 보였다. 그는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체질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대학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경제대학,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4.03.01.~2024.8.31)

학부 동문 문용호, 유경윤, 정진화, 서강 G-EnH 최고위과정 20기 원우회, 김상수, 오창석, 정철, 황대하

교직원 김준석, 김종화

서강의 벗 구자관(삼구아이앤씨), 르퓨처자산운용주식회사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